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최명규 부시장, “철저 방역 수칙 준수·의심 증상 시 즉각 검사 받아달라” 당부

최근 전주시역 학교와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

최명규 전주시장은 15일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6일부터 일주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명규 부시장은 “4월 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단계 격상 이후 우리시의 확진자 발생 수와 확진자의 동선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주시로 확진자 노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간 평균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발열,



15일 최명규 전주시장이 전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는 브리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며 “전주시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시민생활 안

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혁신전주, 시민과 사회문제 해결 위한 연구·실행사업 추진

전주시민들이 코로나19 등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연구 활동을 펼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사회혁신전주(소장 원민)는 오는 11월까지 시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시민연구 및 실행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주제는 ‘코로나19 대응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주시민 행복지표 향상 방안’으로, 2개 주제 중 1개를 선택해 관련 정책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실행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사회혁신전주는 10개 팀(개인)을 선정해 탐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다음 달 진행해 오는 6월까지 시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행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정책 제안 및 실행사업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초·중·고교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운영 개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전주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전주시 각급 학교 학생 340여명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평보부터 숙보까지 승마 기초 과정을 10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지원으로 학생 개인 부담은 30%(9만6,000원)로 최소화해 경제적 제약 없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험도 의무 가입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주시마장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도 비치했다.

또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 장비는 사용 이후 즉시 소독하며 이를 위해 살균, 소독, 탈취 효과가 우수한 플라즈마 자외선 소독기



전주시설공단은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전주시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를 도입했다.

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즉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학생승마체험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휴교로 배움과 체험의 기회

가 줄어든 학생들이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자전거길’ 지도에 담는다

시, 하천·도심 내 자전거길·가족코스 등 담아 제작

에코시티 세병공원과 혁신도시 기지제 등 전주 자전거길이 지도로 제작된다.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자전거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전주 자전거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전거 다올마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SNS 자전거길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전거길을 염선했다.

지도에는 ▲건지산길, 백제대로길, 에코시티 길 등 도심 내 자전거길 ▲전주천·삼천·아중천 등 하천 자전거길 ▲혁신도시 기지제, 동서학동 바닷쇠는길 등 가족코스

▲동호인 추천코스 등이 담인다. 코스별 대표적인 즐길거리와 먹거리, 난이도, 주행시간, 거리 등의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위치와 이용방법,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도 안내된다.

자전거길 지도는 공영자전거 대여소와 관광안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자전거길 지도는 전주시 자전거 블로거 등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름다운 민간 정원 공모

전주시·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23일까지 접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지역 곳곳에 조성된 아름다운 민간 정원을 발굴한다.

시와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조성된 지 2년 이상 된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2021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2회째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3개 정원을 발굴·시상한다. 선정된 개인·공동체에는 아름다운 정원임을 인증하는 명패와 상품권이 주어진다. 상품권은 ▲대동 정원상 300만원 ▲풍류 정원상 200만원 ▲울곧은 정원상 100만원 등이 주어지며, 화훼인연합회 가입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식물의 다양성 ▲공간계획 ▲완성도 ▲지역 특성 ▲대중성 등으로, 전주시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수상한 정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에는 심사 과정에서 시민 투표 접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홈페이지(gardenj.or.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forest366@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063-285-0515)로 문의하면 된다. 아름다운 정원 선정작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조성된 지 2년 이상 된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2021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정원 개방 여부를 협의해 일반 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관계자는 “전주의 멋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정원을 발굴해 정원도시로서의 전주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선정된 정원을 시민에 개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오픈 정원의 선도 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